

교회 목표

신랄한 에베
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최해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알제용

지금, 십자가 복음 안에 계십니까?



2010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2월을 몹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더욱 바쁘고 설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주함으로 정작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것을 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요 3:16). "지금 십자가 복음 안에 계십니까?" 이 질문은 매순간 스스로에게 해야 하며, 서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넓은 길(마 7:13)로 나아갈 것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갈 6:1). 오늘 2011년 단기선교 설명회가 있으며, 다음 주일에는 각 교육부서의 학생들이 등반하는 등 2011년을 위한 각 위원회와 부서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 성령을 떠나서는 진리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많은 사람이 연구, 고찰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영원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조령하여 주실 것을 먼저 기도해야 한다(요 14:26).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요 5:39).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 쏘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하는 일을 행하신다(요 1:45).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구원자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눅 18:31). 증인이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의 손에서 흘러나갈 때에 가장 효과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대답이 있는 무한한 계시를 주셨다(롬 11:33~36).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가르침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이다(롬 15:4; 요 1:14).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한 점의 착오도 없는 그대로 인간 저자들의 손을 사용하신 감독자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저자들과 함께 일하셔서 성경이 인간의 글임과 동시에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감동'(딤후 3:16)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와 동일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The Breath of God)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만든 것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를 베드로후서 1:21에 찾을 수 있다. 즉 영감은 성경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시는 것을 기록하게 하는 그 모든 과정 모두를 말한다. 이 영감은 성경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과오가 없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 곧 역사적인 사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틀림이 없는 진실이다(마 22:41~45; 갈 3:16; 요 10:34~35).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영감)임을 자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라는 하나님의 도장이 성경 각 페이지마다 찍혀 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인간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사 55:11). 성경은 다른 책들과 같지 않다.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책의 말씀과 늘 함께 계시며 그의 목적을 따라서 능력을 부으신다. 또한 성경에 의하여 생동력(히 4:12) 있으며 완전히 성서적이고 인간적이다. 성경의 인성은 개성과 서술 방법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성경의 기자들은 각각 다른 어구, 문법, 배경, 어조를 가지고 있다(딤후 4:13). 성경은 성육신의 비밀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시다. 무한정 깊은 내용을 인간의 한정된 언어를 통하여 쓰신 것이다. 이 이면성은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 관계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내신 계시로 성경이 완전하게 권위가 있고 영감으로 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확실하게 하셨다. 계시는 인간이 다른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 주시는 대화이다.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보면 계시는 모든 지식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일반적 계시와 초자연적 특별 계시로 나눈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에 대하여, 곧 그의 존재와 그의 신성 또한 영원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시 19:1~4; 롬 1:18~20). 이 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저주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특별 계시를 통하여 나타내신다. 이 계시의 최종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요 1:18, 14:9; 골 1:15; 히 1:3). 특별 계시의 한 방법은 글로 쓰여진 계시다. 성경은 계시를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곧 계시다. 이 성경을 기록한 그 행위 자체가 성경의 개인적인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감이라고 한다. 즉 성경은 영감이 없이 이루어 질 수 없고 영감이 없이 해석 될 수도 없다(요 15:26). 아멘.

YOU SHALL BE MY WITNESSES

"Gathering them together, He commanded them not to leave Jerusalem, but to wait for what the Father had promised, "Which," He said, "you heard of from Me; ⁽⁵⁾for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not many days from now." ... ⁽¹⁰⁾And as they were gazing intently into the sky while He was going, behold, two men in white clothing stood beside them. ⁽¹¹⁾They also said,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looking into the sky? This Jesus, who has been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in just the same way as you have watched Him go into heaven."

(Acts 1:4~11)

Witnessing is the greatest lack in the church today! Many things get done well in the church, certain programs have even become almost professional, but few churches excel in witnessing. It seems that churches worldwide are more concerned about public opinion and are more interested in what other people think about their church than in witnessing. Witnessing has taken a back seat because of fear. Indeed, most churches and most Christians today are scared of society's perception of them. It's a dangerous situation that needs immediate correction. Why? Witnessing is a direct mandate from the Lord to all churches, all Christian believers. It is a necessary function of faith, not an optional responsibility. Let's answer a few questions to help us get back on track.

What time is it? After Jesus died and resurrected, His disciples wanted to know if now was the time that God was going to restore His kingdom to His people, "So when they had come together, they were asking Him, saying, 'Lord, is it at this time You are restoring the kingdom to Israel?'" (Ac. 1:6). In anticipation of His ascension, His disciples were scared and wanted to know what was going to happen. Jesus had already paid for sin at the cross. He had risen just as He promised. Now He was about to leave them and they really wanted to know if now was the time for God's kingdom restoration. Jesus told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imes or epochs which the Father has fixed by His own authority" (Ac. 1:7). Many have longed to know this time. In the past 2,000 years of Christian history there have been many people claiming this or that particular day for Christ's return. Uninformed people have given up their jobs and belongings following after such false claims. Matthew 24:36 clearly states, "But of that day and hour no one knows, not even the angels of heaven, nor the Son, but the Father alone." It's the biggest secret in the universe, but people still want to know. What time is it? It is time to proclaim the gospel! The urgency should overcome our fears of witnessing. What time is it? It is time to witness. It is time to win souls, each day bringing you closer to Christ's return.

Who empowers us now that Jesus is gone? Jesus told His disciples,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c. 1:8). Jesus' promise was fulfilled at Pentecost, "And suddenly there came from heaven a noise like a violent rushing wind, and it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And there appeared to them tongues as of fire

distributing themselves, and they rested on each one of them.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as the Spirit was giving them utterance" (Ac. 2:2~4). Once filled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Peter, the uneducated fisherman from Galilee began witnessing. What happened? Over 3,000 souls came to know Jesus in one sermon, "So then, those who had received his word were baptized; and that day there were added about three thousand souls" (Ac. 2:41). The great news is that the Holy Spirit is still here! He resides in the church and each individual believer, "Or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whom you have from God, and that you are not your own?" (1 Cor. 6:19). The Holy Spirit's power has not diminished. We are to witness in His power. The Holy Spirit prepares hearts for our witness. The Holy Spirit provides the words from the Bible for our witness. Why should you fear witnessing when the Holy Spirit is here? Please don't rely on your own wisdom and experience, but rather deny yourself and rely upon the Holy Spirit.

Who has called the church and Christians to witness? Jesus said,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Ac. 1:8). Jesus Himself has called us to witness. Jesus alone endured the cross for our sins. Jesus alone rose from the grave. Jesus alone ascended into heaven to prepare our home, and He is coming again to bring us home, "And after He had said these things, He was lifted up while they were looking on, and a cloud received Him out of their sight. And as they were gazing intently into the sky while He was going, behold, two men in white clothing stood beside them. They also said,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looking into the sky? This Jesus, who has been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in just the same way as you have watched Him go into heaven'" (Ac. 1:9~11). What a wonderful Jesus! He is the One who will reward His faithful servants.

My dear friends, recently a lot of churches and their staff have begun new activities based on their own ideas. Please exchange your fears for faith. Start witnessing now Jesus Christ alone; in view of our Lord's return,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in obedience to our Savior. What is your life all about? You really need to think about Jesus in light of the fact that He died for you and gave you everything. He wants you to have eternal life. He wants you to be His witness. Amen.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 (40)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4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4~11)



김성관 목사

오늘날 교회는 증인의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관심을 두고 행하는 대부분의 사역은 어떤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일 뿐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세속적인 교회들은 증인의 사명보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평가에 염려하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증인의 사명을 제쳐두고 있습니다. 진실로, 대부분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사명은 예수님이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무슨 시간인가?

무슨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에게 회복시키실 때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인가 하니”(행 1:6). 예수님이 승천할 것을 알았던 제자들은 두려웠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막 그들을 떠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회복되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행 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특정한 날에 재림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을 믿었던 무지한 사람들은 직업과 소유를 버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24:36 말씀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고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감추어진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지금이 무슨 시간입니까? 지금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시간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이 무슨 시간입니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시간입니다. 매일 가까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가?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 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홍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2~4).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교육받지 못한 어부였음에도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전한 한 번의 설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3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행 2:41). 더욱 놀라운 소식은 여기에 바로 그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모든 성도 안에 살아 계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전 6:19). 성령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능력 안에서 증인이 됩니다. 성령님은 증인들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함에도 복음전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제발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성령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증인으로 부르셨는가?

누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증인으로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 승천하셨고 이제 곧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 1:9~11). 예수님은 진실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상 주실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교회와 직원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기초한 새로운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하는 증인 되기를 시작하십시오. 구주께 순종할 때 성령님은 도우실 것이며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입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이 참 빛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

메시아의 죽음 56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눅 22:42 ; 마 26:42)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핵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요 12:28). 이것은 주기도의 시작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 6:9)라는 구절과 비슷하다. 또한 누가와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주기도의 한 부분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옵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눅 11:4)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마 6:12-13)는 겐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마 26:41)라는 말씀과 비슷하다. 이것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기도와의 비슷하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요 17:15).

겐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배와 잔'에 관해서 드린 기도는 산상수훈의 주기도(마 6:9-13)와 내용이 비슷하다. 예수님은 주기도의 내용(마 6:10)처럼 겐세마네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도에도 자신의 뜻은 전혀 없었다.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 했지만, 그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혼들을 위한 간구뿐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우리는 매번 환난과 고통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나의 뜻'으로 가득한 기도에도 열심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기도는 복음과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의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다. 특히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나의 고집과 자존심을 버리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행 21:14). 하나님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막 10:38 ; 막 10:27).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다(막 14:1).

그런데 우리는 항상 "왜? 어떻게?"를 외치며 의심하고 반항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마 19:24).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한다. 주기도와 겐세마네의 기도와 우리의 삶에 생명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는다. 그래서 세상의 험박에 아주 쉽게 십자가를 포기하고 타협한다(요 9:22).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다. 악한 영들은 모든 사람과 환경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요 16:2).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이다(요 12:28). 아멘.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0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아름다운 교회
(사도행전 4:29-31)

1세기 초대교회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당시 유대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한 뒤에 풀어주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위협에 굴하지 않았으며 더욱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다(행 4:24-29). 사실, 초대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 즉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았던 가족들, 예수님께 항변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권력에 욕심을 갖고 있던 야고브와 요한,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한 채 슬퍼했던 마리아 등은 모두 문제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성령님은 그들을 완전히 바꾸셨다(행 1:14, 21, 4:32). 진실로 소망 없는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를 주님이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신 것이다.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였다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들은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다(막 11:23-25). 핍박자들에게 의해서 언제

때 맞고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할지 모를 위험한 판국에 그들은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용서의 삶(마 6:14 ; 행 9:17)을 살았으며 기도의 능력을 직접 체험(행 4:10-12)하였다. 이것은 오직 복음의 말씀을 붙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진리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5-16).

● 형제들을 바로 잡는 교회였다

아름다운 교회는 형제들의 잘못을 교정하여 준다. 교정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모습을 과감하게 지적하여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해야 한다(마 18:15-18).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이 되었지만, 정반대의 결과에 이르게도 한다(고후 2:15-17).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확실하다. "이 교회는 내게 말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딤후 1:11). 우리는 매순간 범죄하는 죄인이기에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복음 안에 있어야 한다. 또한 복음 안에서 있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딤후 1:19-20).

●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다

아름다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구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사랑의 실천을 의미한다. 실천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을 때에만 참된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다(골 4:30-32). 베드로의 사랑 실천은 '회개'였다(행 2:36,38). 이때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행 2:41). 계속해서 베드로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고, 기적의 역사는 이어졌다(행 3:6-10).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분명 핍박을 받는다(행 7:59-60).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더욱 부흥되었다.

초대교회의 상황과 오늘날 교회의 상황은 비슷하다.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며, 복음을 호리개 하는 환경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다면 문제없다. 또한 형제들을 바로 잡아 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라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다." 아멘.

망글까지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처음 도착한 사역지에서 20명 정도의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하는 언어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더욱이 모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영혼들을 보며 나의 부족한 능력을 의지한 것을 회개하였다. 항상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진리를 생각하며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었다. 어느 마을에 갔을 때 예수님을 믿는 할머니를 만났다. 그런데 여러 명의 무슬림 청년들이 전도를 방해했다. 나는 너희가 더 예수님이 필요하며 회개해야 한다'고 담대하게 한국말로 말하고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할머니께서 그 청년들과 큰 소리로 영적 전쟁을 하셨다. 잠시 후 청년들이 물러갔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할머니와 부동켜 안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눈물이 한없이 흘렀다. 정말 은혜로운 역사의 현장이었다. 많은 핏박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분들을 보며 우리의 낙하고 안일한 믿음을 회개하였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라고 말하고 마을을 떠났다.

이희정(집사, 20교구)

이제 나의 기도제목은

참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한 선교이다. 어릴 때부터 선교를 다녔기에 나도 모르게 경험과 지식으로 선교에 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였고, 이런 나를 주님은 혼내셨다. 내가 알이온 주님은 항상 나에게 사람만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셨다. 공의의 주님을 잊고 말았던 것이다. 그 이후로 또 그런 모습으로 선교지에 나가게 될까봐 선교 자체가 두려워졌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또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할 수 있게 하셨다. 하지만 출발할 시간이 다가올수록 나의 두려움이 생겨났다. 준비한다고 하긴 했지만 기도가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 투성이었기에 다시금 두려움이 느껴졌다. 사탄이 나를 그렇게 혼드는 와중에 주님은 그 두려운 가운데서 진정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고 눈물로 간구하게 하셨다. 또 선교지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원했던 것보다 몇 배의 사람으로 채워 주셨다. 선교지에 나가서 첫 영혼을 만나니 그 순간에도 두려움을 잊었지만 나를 쓰실 이에게 모두 맡겨버리니 그 안에 담대함을 주셨다. 이제 나의 기도제목은 나의 일상생활에 지쳐 선교지에서 만난 그들을 잊지 않는 것이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하길 바란다. 사랑의 주님이 그 풍성한 사람으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사람으로 나를 얻으신 것처럼 그들도 그 풍성한 사랑에 덮이길 원한다.

(예지희(대학부))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인을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키시어 주님의 군사로 삼으사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역지 이곳저곳에서 부족한 자들이 아둔하고 하며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뜨거운 핏방울과 복음을 배척하는 영혼들도 있었으나, 그래도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절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는 순수한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 이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꼭 믿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발걸음 옮기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을 불드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선교 사역을 통해 나의 믿을 생활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그 무한한 영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정태(안수집사, 5교구)

주님, 이 늙은 사람을

주님, 이 늙은 사람을 단기선교사로 불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많은 참 광활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씩 떨어져 허허 벌판에 하나가 있는 거주지를 보면서 '주님이 지으신 세상도 가지각색이구나!' 생각하며 주님의 오묘한 솜씨에 다시 한 번 감탄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많이 전해야 하고 전해야 주기도 교회가 없어 공동 신앙 생활을 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구원받은 수가 늘어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남녀노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어찌 할 수 있었습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채영(집사, 13교구)

이번 주에 흠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간	팀	팀장
12월 8일(수) ~ 12월 16일(목)	19교구 9팀	윤석규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간	팀	팀장
12월 2일(화) ~ 12월 10일(금)	3교구 2팀	윤순규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간	팀	팀장
11월 23일(화) ~ 12월 1일(수)	12·14교구 연합팀	채종표
11월 23일(화) ~ 12월 1일(수)	16교구 4팀	문경숙

예수님이 진짜 복음의 힘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된 지는 3년 반 정도
됩니다. 사실 처
음 '실자가 못 박
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라는 설교가 솔직히 이

해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실자가 못 박혀 죽으셨? 다른 건 다 믿었는데 저런

교회 계속 다니게 하려고 하는 속셈일지?' 믿지 않는 가정

에서 자라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자왔던 저였기에 제 마음 안에는 여

전히 예수님을 조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의 그 평안함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에서

자라게 해 주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큰 은혜가 됩니다.

올 한 해 저희 가정 안에는 큰 시험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적에게

2010년 한 해는 너무나도 크신 주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불미스

러운 일로 구속이 되었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건강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급하게 오면 중에 차 사고를 내어 구속이 되었

습니다.

내 평생 교도소라는 곳을 가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교도소 한 쪽

에는 엄마, 또 한 쪽에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그렇게 교도소를 쳐다보

고 있자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있다면 저한

테 주신 일이 어떤 건지 똑바로 보지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당신이 나한테 주

신 상황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따위는 없다며 누구라도 볼다고

울고 싶었는데 누구에게도 말은 할 수가 없고 그 원망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저는 매일 그렇게 불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무지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저처럼 일들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그들을 살

려 주시면 제가 실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살려 주십시오."

순간 한 대 맞은 느낌과 함께 갑자기 캄캄했던 앞이 너무나 환해지면서 예수

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실자가
못 박히셨구나. 나는 고자 우리 가족인데, 주님은 정말 이 세상 모두를 위하여
못 박히셨구나. 사람들이 무엇이었기에 혼자 그렇게 실자가 못 박히셨을까?
주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그 동안 읊었던 것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의 기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매
순간 느끼며 기도하게 되었고, 우리 가족들을 진심으로 구원해 주시길 기도하
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와 동생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가족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 계시고 여전히 저희를 만져 주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
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감사함으로 노방전도를 나가게 하였고 치
음으로 선교도 가게 하셨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몰라서 죄의 길로
가는 영혼들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갈급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한 죄의 길로 가기 전에 주님께 인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이 진리이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게 되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과 평안
을 선물로 받게 되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만드시는 것을, 그리고 그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그렇게 믿지 않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교회에 나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를지라도 그들의 귀에 말씀을, 그들의
입술에 찬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예수님이 진짜 있어?'라는 의문이 아직도 있으시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진짜이고 늘 옆에 살아 계심을 곧 알게 하실 것입니
다. 복음의 힘이 가슴을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복음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깨
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꼭 죄를 지어서만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것 또한 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우리는 그 보혈만을
기억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홀로 높임 받으셔야 하는 분은 예
수님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무명(정년1부)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 1

<메시아>를 찬양하며

나사렛교회에서 연수 중인 찬양인양제



지난 9월부터 새로운 찬양곡집으로 <메시아> 찬양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찬양대원이 아니어서 많은 찬양대원들 사이에서 매우 연습을 한다는 것에 거
리감을 느꼈습니다. 찬양대에서 계속 찬양을 불러오면서 목소리를 갖고 다닌 분들
에 비해 저는 2년 동안 찬양대와 떨어져 살았기에 아직은 마냥 어색한 저의 목소
리가 부끄럽고, 찬양대 연습이라는 것 자체가 어색할 뿐이었습니다. 메시아 찬양
연습은 매우인양제 찬양예배가 끝난 뒤, 나사렛교회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주
일 이른 아침부터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기에 주일찬양예배 후에 있는 연습이
힘들었습니다. 다음날 곧바로 이어지는 학업도 있기에, 마음과는 달리 힘이 피곤해
져서 중간 중간 '하지 말까?'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성년이 다가올수록 내가 찬양하는 것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
하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로도 충분한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끼 예수가 탄
생하시던 날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하고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내
가 부르는 찬양이, 이 부족한 목소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내 속
의 기쁨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
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메시아>를 연습하면서 문득 문득 이 찬송 가사가 생
각났습니다. 그때는 그 큰 줄거리가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 '산과 들도 기뻐
서 찬양하는데, 주님께 구원받은 나는 산과 들보다 두 배, 세 배, 백 배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17일 금요찬양집회에서 그 동안 준비한 <메시아>를 부르며 찬양을 주님께
드림 텐데, 찬양대원들과 함께 성도들도 <메시아>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교회 전체가 주님께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애(대취부)

*12월 17일 금요찬양집회는 찬양인양제와 함께 온 성도가 그 동안 연습해 왔던
<메시아> 곡을 찬양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다.

2010년 후반기 수요성경공부를 마치며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

구약의 인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 때가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서 받는 압박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나에게서 제일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과 시비와 다툼을 피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엔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애 보았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마느니라"(롬 1:28~32)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고 회개하며 열기를 죽이곤 했습니다. 이번 구약 성경공부를 하면서 얻은 받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거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이 최인물 물과 피를 다 쏟아 구원의 은총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재호(만수교회, 22교구)

구약의 맥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수요성경공부를 통해서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비록 말아먹고 함께 하는 공부라 부산스럽고 집중이 안 될 때도 많지만 그 와중에도 들을 귀를 주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 올 가을 학기도 '구약의 맥'을 신성에서 강의를 들었다. 때마다 느끼지만 저렴한 수강료(3천원)에 10주간, 그것도 목사님들이 직접 만든 교재로 강의를 듣는다는 게 참 감사하다. 우리는 1시간 30분의 시간과 정성과 기도로 준비하면 된다. 구약의 맥을 모세오경의 맥, 역사서의 맥, 시가서의 맥, 예언서의 맥 이렇게 큰 주제로 다시 나누어서 강의를 들었다. 창초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섭리하심.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다윗 왕처럼 저절로 찬양이 나온다. 골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며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내 마음편에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한다. 김지연(장사, 1교구)

신약의 인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이며 그 진리는 분명하고 간단하다. 속죄함을 받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 배운다는 것은 은혜요 특권이다. 주님의 은혜와 인물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갱새다 출신 제자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최인물에게 오셔서 제자로, 사도로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셨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함과 최인임을 깨닫게 하는 주님의 은혜. 허물 많은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며 주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도무지 소망 없는 최인물이지만 믿음으로 소망 중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신비한 계명이나 경험,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사랑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며, 믿음의 삶과 어리석은 삶이 무엇인지 비교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알게 되었다.

김동현(장사, 11교구)

심자의 길

메리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성탄절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다. '메리'는 '기쁜,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경배)하라'의 의미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인사말인 것이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 탄생일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354년에 편찬된 필로칼리야 목록표(Philocalian Calendar)에 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이 12월 25일을 태양신의 탄생일로 축하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에 맞서 이미 336년에 같은 날짜를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문헌(Pseudo-Chrysostom tractate)을 보면 예수님은 수태일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동일하게 3월 25일이기 때문에 그의 탄생일은 9개월 후인 12월 25일이 된다는 것이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다. 문제는 성탄절의 날짜가 아니라 성탄의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탄절과 연관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의 본질적 의미와 상관없이, 산타클로스는 전설과 관습의 존함물이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원래 성탄과 연관된 송가로 국한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연말 연시를 알리는 유행가처럼 불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의 본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대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아들들을 낳으라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 1:21).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1341	강태희		2	
1342	강준희		2	
1343	정인성	고등부	11	박동규
1344	박창서	대학부	6	김태민
1345	채시현	대학부	5	정수민
1346	김신배	양육반	12	김성해
1347	고준서	양육반	23	
1348	최성희	양육반	3	
1349	강노을	양육반	3	
1350	전예지	고등부	7	김정윤
1351	정보용	대학부	6	김기태
1352	서은희	양육반	19	채해신
1353	박정원	양육반	9	박정혜
1354	강두은	양육반	17	황의만
1355	김진성	초등2부	24	정요한
1356	백시현	양육반	21	안세현
1357	권효진	양육반	16	황정애
1358	황욱선	양육반	3	나기태
1359	박희정	양육반	1	
1360	최수임	대학부	22	이혜민
1361	박옥순	양육반	13	
1362	김소진	초등2부	13	

Copyright © 2010 주원교회 Published by Cheongwon Church Press